

목포시 소규모 예산으로 관광객 유치·세수 확대 추진

# 일석이조 '틈새 시책' 돋보이네

목포시가 소규모 예산으로 관광효과와 세수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틈새시책 추진에 나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물모뎠로 떠오르고 있다.

'유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과 '시내버스 승강장 내 광고유치' 사업이 대표적이다.

목포시는 지난 3월 관광명소인 유달산에 총 7개 코스 6.3km의 둘레길을 조성한 뒤 6개월에 걸친 스토리텔링 작업을 거쳐 1단계로 유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에 나섰다.

이번에 설치된 안내판은 단순하게 명칭과 지리적 거리만 표시된 기존과 달리 유달산이 품고 있는 자연·역사·사람을 새겨 넣은 '이야기가 있는 표지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마디, 도시의 역사를 기록한 목포만의 색(色)을 입혀 품격을 높였다. 여기에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표지판은 지역민은 물론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감동과 흥미를 유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유달산 둘레길 스토리텔링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유치 예산 부족 극복 '물모뎠'로

로 기대돼 '관광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목포시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스토리텔링은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관광 상품화 시킨 모범사례로도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 표지판은 오는 11월까지 예산 3000만원을 들여 구간별로 총 16개소에 세워지고 내년엔 추가로 30개소에 설치된다.

틈새시책 발굴에 의욕을 보여 온 박홍률 시장은 "유달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곁들여 그 상승효과를 높인 사업"이라며 "앞으로 스토리텔링화한 다양한 볼거리 명소를 추가로 개발해 지역의 테마자원으로 꾸미고 이를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내표지판과 함께 목포시는 관내 300개소에 달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내에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승강장내 상업광고를 개시해 첨단화된 승강장으로 유지관리하고 더불어 세외수입까지 늘려가겠다는 계산이다.

시는 우선 방풍식 승강장 248개소 가운데 100곳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기로 하고 승강장 위탁관리업체 공모에 나섰다.

윤인영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장은 "유지관리 비용은 승강장 광고를 개시 수입으로 충당하고, 광고 수입금의 일부는 시에 납부하는 방식"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틈새시책 개발 시책에 목포시의외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목포시의외 이기정 운영위원장은 "열악한 목포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승강장 상업광고 도입은 의미 있는 시도이자 좋은 대안"이라며 "시의외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틈새시책 개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제주 뱃길 주·야간 연중무휴 운항된다

목포~제주 간 항로가 주·야간으로 연중무휴 운항될 전망이다.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씨월드고속훼리(주)대표이사 회장 이혁영은 11일 "업그레이드된 객실과 시설을 갖춘 대형 뽕뽕 크루즈 카페리 선박인 '산타루치노호'를 13일부터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운항한다"고 밝혔다.

산타루치노호의 운항으로 기존 씨스타루크호는 목포~제주간 야간 시간(밤 12시 30분)에 투입돼 밤바다의 낭만과 무박 제주여행의 실재를 선사할 예정이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앞으로 대형 뽕뽕 크루즈 선박의 주·야간 투트랙-원스톱 운송체계를 통해 24시간·연중무휴 여객·물류 연계 서비스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산타루치노호 내일부터 투입 2만4000t급 정원 1425명

산타루치노호 국제톤수는 2만4000t급으로 길이 189m, 너비 27m, 깊이 15.15m, 속력 24노트, 총 운항시간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산타루치노호는 현대식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으며 여객정원 1425명, 차량 500대(승용차기준)를 수송할 수 있다. 또 선내에는 국내 유명 제과 체인점을 비롯한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갑판에 대형 테라스를 배치해 보석의 섬 다도해 해상부터 제주도까지 바다 여행의 낭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3일 출항을 앞둔 산타루치노호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여객선 검사

규제 및 안전기준, 선령 제한 등 까다로운 안전조건을 모두 통과한 저선명 선박으로,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고객 편의시설까지 고급화해 양질의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설명이다.

운항시간 및 요금 등 자세한 내용은 씨월드고속훼리(주) 홈페이지(www.seaferry.co.kr)와 대표전화(1577-35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기점 여객·화물 수송물 1위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주)는 2011년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선박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크루즈형 대형 카페리 선박을 도입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새로운 해상여행의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취항 이후 320여만명의 이용객을 수송하는 등 해상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유달산 둘레길에 설치될 스토리텔링이 있는 표지판(왼쪽)과 내년 1월부터 상업광고가 실시되는 방풍식 버스승강장.



## '신규사업 없다' 정치권 주장에 박홍률 시장 반박 배경은? 공직자 안이한 대처 질타... 고삐 죄기 포석

박홍률 목포시장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 없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최근 10월 정례회에서 "신규 사업이 없다는 일부 여론은 사실이 아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예산 신규 사업이 9건에 103억원이 반영됐다"면서 "부채 등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시비를 투입할 수 없어 대형 프로젝트가 없을 뿐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신규사업이 없다는 잘못된 여론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좌고우면(左顧右盼)'한데 대한 우회적 질타로 해석되고 있다.

박 시장이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업무 추진과 공직자 직분에 맞는 자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면서 "목포시는 시민이 주주인 주식회사이고,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다.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소속부서를 떠나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 같은 심기를 엿볼 수 있다.

실제 박 시장이 민선 6기 출범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과거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시장 안팎

에서도 '느슨해진 고삐를 죄기 위한 책책이다. 교육자책이다'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대양산단과 트윈스타 사업 등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올린 신규 국비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유언비어로 취급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안에 반영된 목포시의 내년도 신규 사업은 서해권 해상종합비상훈련장 조성(5억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80억원), 남해아취제거사업(5억원),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5억원), 울도 및 달리도 도로개발사업(2억원), 유아 숲체험원 조성(1억원) 등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헤인여중,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토론분야 대상

목포 헤인여중(교장 김무순)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대회인 '제33회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탐구도론분야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각 지역별 예선을 거친 전국 1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헤인여중 3학년 탐구 토론팀(이하은, 정채원, 구보라)은 '장애인 공공편의시설의 과학적 개선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탐구결과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반론과 답변, 평론, 논평 등을 거쳐 대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상은 중학교 탐구도론분야에서 전남도 최초이자 전남도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독서토론 수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수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도 대표로 참가한 헤인여중팀이 발표한 '장애인 공공편의시설의 과학적

## 개선방안'은 지자체장인을 위한 경사로 개선 방안과 역회전 방지 기어를 채용한 휠체어 개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신발 등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것이다.

헤인여중팀은 대회 1차전에서는 전북·광주 팀을, 2차전에서는 경기·충남·제주 팀을 제치고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경남·경기팀과 무려 4시간 동안의 토론을 거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경찰, 북이탈주민·다문화가정 PC 지원 '훈훈'

목포경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지원에 앞장서 미담이 되고 있다.

목포경찰은 지난 8일 목포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안병갑 목포경찰서장과 전호강 보안협력위원회장, 강구영 ㈜TGS 대표,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대표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북민·다문화가족 PC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

을 가졌다.(사진)

이번 MOU 체결로 보안협력위원회와 TGS(삼보컴퓨터)는 목포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PC를 기증받아 수리한 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기증하게 된다.

안병갑 목포경찰서장은 "탈북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약구독 (062)220-0550

지역	구분	전화번호
지방지사 (061)	광 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시내지국	남 원 시	063)626-1601
	순 창 군	063)653-04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1004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5-5501(시·군)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곡)	
강진군	434-6830	
해남군	537-6767	
고흥군	842-2121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명부	222-9054	
홍원	225-6001	
백운	267-4748	
선봉	673-4698	
북광	675-6530	
상무	525-3761	
서광	372-2352	
하산	369-0583	
안산	675-6805	
양치	512-1732	
오치	571-7658	
웅천	266-7601	
우봉	522-7752	
윤곡	512-8116	
천곡	371-9818	
중앙	961-2339	
황양	222-1896	
충원	224-68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장평	224-8212	
치평	376-6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